

“왜그래 풍상씨! 복장 터진 마음 담아 외쳤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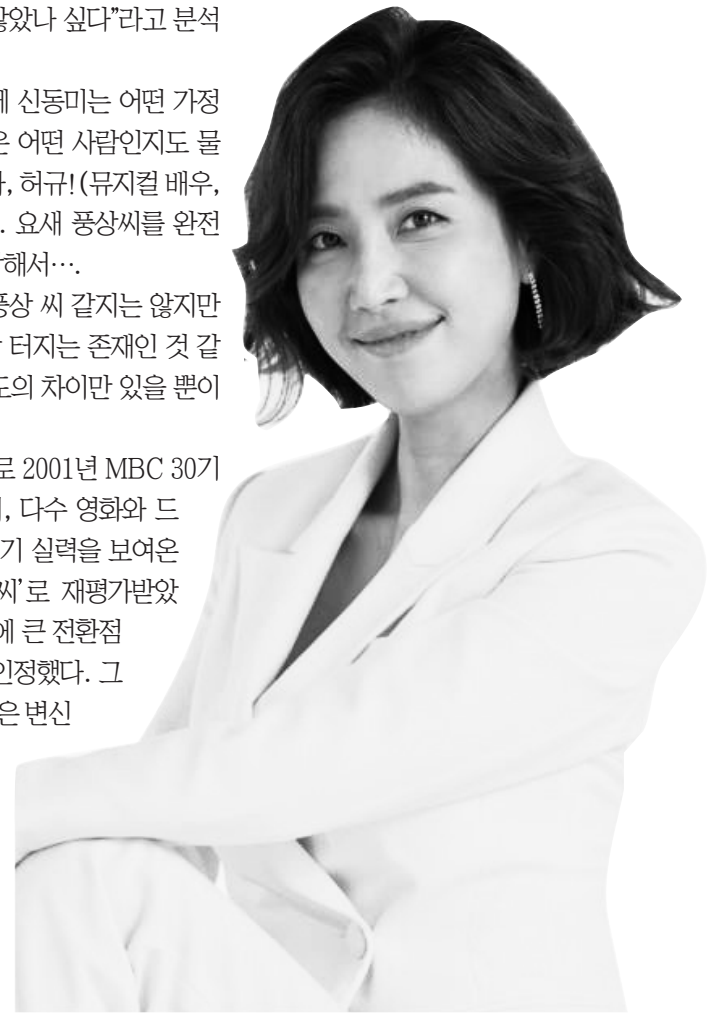
배우 신동미 “막장극 아닌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
유준상과 ‘최고의 호흡’ 자랑, “연말 커플상 노려”

시청률 20%를 돌파하며 가족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은 KBS 2TV 수목극 ‘왜그래 풍상씨’에서 “왜그래 풍상씨”를 가장 많이 외친 이풍상(유준상 분)의 아내 간분실. 극 중 이름처럼 간이 많아 없어졌을 것 같을 정도로 눈물, 콧물 속엔 열연을 선보인 배우 신동미(41·사진)를 강남구 논현동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상큼한 단발머리에 화사한 미소, 신동미는 끊임 없는 마음고생에 늘 추레하기만 했던 분실을 떠올리면 10년은 젊어진 듯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는 “드라마에서 정말 ‘생일’ (화장 안 한 얼굴)이었다”라며 “오늘 메이크업 받고 머리 만지러 갔더니 다들 놀라시더라”며 웃었다. 신동미는 작품 종영에 대해 “이제 불씨가 붙은 느낌이었는데요 어렵다. 이제는 준상 오빠와 부부관계 같고, 치기만 해도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 시점이 됐는데 끝나버

렸다”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작품을 통해 겪은 고난과 역경, 그리고 진을 모두 뺀 정도의 감정 소비에 대해서는 어려움도 고민도 많았다고 털어놨다. “사실 제 입장에서 제일 밉상은 진상(오지호)도, 화상(이시영)도 아니었어요. 바로 풍상이었어. 남편으로서의 최악이죠. 특히 정상(전혜빈)에게 소고기를 사줬다고 할 때, 진심으로 화가 났어요. (웃음 후 침묵) 사실 정말 복장 터지는 상황이 너무 많았잖아요. 매번 그 마음을 담아 ‘왜 그래 풍상씨’를 외쳤고요. 실제로 사람들이 징글징글하게 밉고, 끝없는 감정의 깊이에 느껴요. 작품 전에 슬럼프가 왔고 두려움도 커서 덜덜 떨면서 촬영했는데, 이번 드라마로 산을 넘은 것 같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풍상을 위로하는 장면에서는 밉지만

살아오면서 느낀 이 사람에 대한 신뢰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더라”며 “문영남 작가님 대사가 또 주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을 받아서 힘들어하면서도 잘 마칠 수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유준상에 대해서는 ‘최고의 호흡’이었다고 자랑했다. 그는 “오빠가 아니었으면 간분실을 연기할 수 없었다. 연말 시상식에서 다른 건 말고 베스트커플상은 노린다”면서 “선배님도 실제로 아프실 정도로 힘들게 연기하셨다”고 했다. 문영남 작가의 작품에는 ‘막장극’이라는 꼬리표가 달린다. ‘왜그래 풍상씨’도 예외는 아니었다. 매번 주인공이 마주하는 극한 상황을 모두 ‘육하면서’ 지켜봤다. 그러나 신동미는 “막장극이라고 생각해본 적 없다”고 강조했다.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다 갖다 놓아서 보는 분들이 힘들었을 뿐, 왜 막장극이라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는 이어 최근 ‘왜그래 풍상씨’를 비롯해 ‘하나뿐인 내편’ 등 가족극들이 다시 지력을 발휘하는 데 대해서도 “한동안 법정, 수사 등 장르극들이 유행했는데 요즘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도 필요해서

흐름이 또 바뀌지 않았나 싶다”라고 분석했다. 간분실 말고, 실제 신동미는 어떤 가정을 꾸렸는지, 남편은 어떤 사람인지도 물었다. “제 남편요? 아, 허규!(뮤지컬 배우, 2014년 결혼) 하하. 요새 풍상씨를 완전히 제 남편으로 생각해서... 실제 제 남편은 풍상 씨 같지는 않지만 남편들은 원래 복장 터지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웃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연극배우 출신으로 2001년 MBC 30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 다수 영화와 드라마에서 안정된 연기 실력을 보여온 그는 ‘왜그래 풍상씨’로 재평가받았다. 그의 연기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된 것을 자신도 인정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많은 변신을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다음번엔 예쁜 역할도 좀 하고 싶습니다. 불러주세요. (웃음)” /연합뉴스



보성군, 전남도 체육대회 축하공연 라인업 공개

보성군이 오는 4월 20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되는 제58회 전남도 체육대회 개최식 축하공연 라인업을 지난 15일 발표했다. 18일 보성군에 따르면 4월 20일 오후 6시 보성공설운동장 야외무대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에는 싸이, 우주소년, 인순이, 거미, 남진, 박현빈, 김연자 등 11개 팀의 아티스트들이 참가한다. 특히, 마지막 무대를 장식할 싸이는 글로벌 팬덤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시장에 K-pop을 알리는데 큰 기여를 한 스타이기도 하다. 이번에도 싸이가 어떤 넘치는 에너지로 전남 도민을 열광하게 할지 기대된다. 한편, 제58회 전남도 체육대회는 4월 20일부터 23일까지 이며 22개 시군 육상, 태권도, 검도, 축구, 골프 등 22개 종목 6천명의 선수단과 관객 등 총 3만여 명이 운집는 전남도 최대 행사다. 이외에도 아름다운 밤을 수놓을 불꽃쇼와 레이저쇼가 준비돼 있다.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질서 유지 등을 위해 당일 오전 무료입장권을 배부할 예정이다. /유조운 기자 yuzy@

봄바람 몰고 온 마마무 “모든 걸 박살 낼 유쾌한 곡”

포시즌포컬러 마지막 앨범 ‘화이트 윈드’ 쇼케이스
유쾌한 에너지의 그룹 마마무(사진)가 고단한 사계절을 지나 봄 냄새 물씬 나는 앨범으로 돌아왔다. 마마무는 지난 14일 홍대 무브홀에서 쇼케이스를 열고 ‘포시즌 포컬러 프로젝트’의 마지막 앨범 ‘화이트 윈드’(White Wind)를 공개했다. 마마무는 지난해 1월 디지털 싱글 ‘칠레 쥐’를 시작으로 봄 앨범 ‘엘로우 플라워’(Yellow Flower), 여름 앨범 ‘레드 문’(Red Moon), 가을 앨범 ‘블루스’(BLUE:5)를 냈다. 솔라(본명 김용선·28)가 파랑, 문별(본명 문별이·27)이 빨강, 휘인(본명 정휘인·24)이 하양, 화사(본명 안혜진·24)가 노랑을 맡아 색깔별로 앨범을 꾸몄다. 계절마다 신보를 낸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소속사 RBW가 마마무를 축하



리더 솔라는 “프로젝트 중반 정도부터 굉장히 힘들었다. 활동이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곡을 준비해야 하다 보니...”라며 “프로젝트가 끝나서 속이 시원하긴 한데 한편으로 아쉽다. 우리 노래를 들려드릴 기회가 많은 건 좋았다”고 회고했다. MBC TV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로 스타덤에 오른 화사는 “지난 앨범에선 성숙하고 깊은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유쾌하게 돌아보는 느낌으로 작업했다”고 말했다. 솔라는 “모든 걸 박살 낼 즐겁고 유쾌한 곡”이라고 강조했다. 마마무는 다음 달 19~20일 서울에서 단독 콘서트를 연다. 솔라는 “마마무의 날 것 그대로를 보여드리겠다. 이번이 마지막 콘서트인 양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 준비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연합뉴스

한편, 제58회 전남도 체육대회는 4월 20일부터 23일까지 이며 22개 시군 육상, 태권도, 검도, 축구, 골프 등 22개 종목 6천명의 선수단과 관객 등 총 3만여 명이 운집는 전남도 최대 행사다. 이외에도 아름다운 밤을 수놓을 불꽃쇼와 레이저쇼가 준비돼 있다.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질서 유지 등을 위해 당일 오전 무료입장권을 배부할 예정이다. /유조운 기자 yuzy@

TV 안내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EBS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부)	6	00 MBC 뉴스투데이(1) 25 MBC 뉴스투데이(2)	00 모닝와이드(1부) 30 모닝와이드(2부)	00 한국기행(재) 20 세계테마기행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부)	7	50 용왕님 보우하사	40 모닝와이드(3부)	00 레이더비그 30 고고다노공룡탐험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 타임	8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강남스캔들	00 당동명 유치원 45 방귀대장 뽕뽕이
30 KBS 뉴스	00 비켜라 운명아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9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00 뽀로로와 노래해요 30 윈드블즈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50 아이템	10 SBS 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30 한국기행(재) 50 최고의 요리비결
00 다큐공감 50 UHD 현식의 마음	00 동네변호사 조들호 2:죄와 벌	11	00 12 MBC 뉴스 25 아이템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20 세계테마기행(재)
00 KBS 뉴스 12		12	00 12 MBC 뉴스 25 아이템	00 SBS 12 뉴스 50 동상이몽2너는내..	00 EBS 정오뉴스 10 극한직업 스페셜
00 네트워크기획 문화.. 50 역사저널 그날	10 트레킹노트 세상을..	1	35 출발! 비디오 여행 55 2시 뉴스 외전		00 다큐 오늘 40 배워서 남줄렴(재)
40 와일드코리아플러스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 스페셜	2		00 뉴스브리핑	30 꼬마 히어로 슈퍼잭
00 시니어토크쇼 황금연못	00 자동차부착상 위키2 30 TV 유치원	3	25 뿌까 55 꾸러기 식사교실		00 마사와 곰 스페셜 45 강철소방대 파이어..
00 사사건건	00 여유만만(재)	4	25 뽀보보 모두가 놀자 55 빠샤 매카드 스페셜	00 생활의 달인	30 방귀대장 뽕뽕이(재) 45 당동명 유치원
00 KBS 뉴스 5 30 동물의 왕국	00 다큐멘터리 3일	5	55 생방송 오늘 저녁	00 SBS 오뉴스	15 마사와 곰 30 로보카 폴리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6	50 용왕님 보우하사	00 순간포착 세상에 ...	00 특!특! 보니 하니 25 로봇 발명왕 러스티
00 KBS 뉴스 7 40 우리말 겨루기	50 원소잡이 아내	7	30 MBC 뉴스데스크	00 생방송 투데이	00 제로니모의 모험 30 EBS 뉴스
30 비켜라 운명아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8	55 섹션 TV 연예통신	00 SBS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40 세계테마기행 30 한국기행 50 EBS 다큐프라임
00 KBS 뉴스 9 55 나의 독립 영웅		9			
00 가요무대	00 동네변호사 조들호 35 동네변호사 조들호	10	00 아이템	00 해치	45 글로벌 아바 찾아..
00 오늘밤 김제동 40 저널리즘 토크쇼J	10 안녕하세요	11	10 MBC 스페셜	10 동상이몽2 너는내운명	55 배워서 남줄렴
30 KBS 뉴스 40 이웃집 찰스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12	10 스포츠특선	30 나이트라인	45 지식채널e 50 세계의 드라마

오늘의 운세

인스타그램 NO1 사주솔루션 더.사주 THE 사주

속 시원한 사주풀이 더.사주가 책임집니다!

3월 18일 (음력 2월 12일) www.instagram.com/the.saju KAKAOTALK : themaj

 子	60年生: 변화에 눈을 떠야 발전 속도가 빠르다. 72年生: 순조롭게 일을 하려면 자존심을 줄이자. 84年生: 친구와 거래는 안 하는 게 남는 길이다. 96年生: 상대방을 칭찬하고 세워줘야 유리하다.	 午	66年生: 혼자 판단하여 포기하지 말고 전진하라. 78年生: 앞장서지 말고 따라가는 것이 더 낫겠다. 90年生: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성과가 있는 날이다. 02年生: 건강에 신경써야 뒤에가서 돈을 줄인다.
 丑	61年生: 도움이 많으니 본인이 쌓은 덕이겠다. 73年生: 마음이 공허할 땐 간단한 조깅이 답이다. 85年生: 본진 생각은 접어두는 것이 속 편하다. 97年生: 고생 않으려면 상대방과 손발을 맞추자.	 未	67年生: 먼저 집안문제를 해결해야 일도 잘 된다. 79年生: 고생 끝에 낙이 있으니 박차를 가해보라. 91年生: 공연히 건드려서 낭패를 당하지 말고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는 것이 득이 많다.
 寅	62年生: 말이 씨가 되니 긍정적인 단어만 써보라. 74年生: 반목이 있을 땐 내버려 두는 것도 좋다. 86年生: 내 작은 시간도 허비 말아야 기회가 있다. 98年生: 친구와 약속은 다음으로 미루는 게 낫다.	 申	68年生: 운은 좋으나 주변에 경쟁자가 많으니 도중에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해보자. 80年生: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니 승산이 생긴다. 92年生: 내 곁에 내가 넘어가니 정착하게 행하자.
 卯	63年生: 낙천적인 생각은 건강에도 좋은 법이다. 75年生: 내 편을 만들려면 남의 약점을 이용하자. 87年生: 잔병이 들기 쉬우니 미리 점검을 해보자. 99年生: 기대를 부풀리지 않으면 실망도 적다.	 酉	69年生: 하루 빨리 미래를 설계해야 고생이 적다. 81年生: 이익이 적어도 할 일은 해야 재물이 돈다. 93年生: 본인의 주장이 강하면 따돌림을 당할 수 있으니 최대한 주장을 숨기는 것이 좋다.
 辰	64年生: 직접 나서지 말고 지인에게 부탁해 보자. 76年生: 노력한 덕분에 명성을 얻을 수 있겠다. 88年生: 만남의 약속은 길하니 피곤해도 나서자. 00年生: 농담을 삼가야 봉변도 피하는 법이다.	 戌	70年生: 어려움은 없지만 작은 근심이 생기니 새로운 일은 시도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 82年生: 아직 때가 아니니 노력이 더 따라야 한다. 94年生: 오늘은 가급적 내부에 있는 것이 낫다.
 巳	65年生: 남에게 베푸는 일도 함께해야 낫다. 77年生: 의욕이 넘치지만 함자가 추진해보자. 89年生: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면 해결 될 것이다. 01年生: 굳이 이성으로 친구와 감정타움을 말자.	 亥	59年生: 내일을 위한 재충전이 필요한 날이다. 71年生: 화해를 시도하고 도움을 얻는 게 빠르다. 83年生: 금전문제로 배우자와 다투고 득이 없다. 95年生: 고집을 버리면 일은 더 수월할 수 있다.